



## D6컨퍼런스

### 통전적 선교전략을 모색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일어났다. 특히 비대면의 일상화는 교회와 선교의 정의 및 방향성을 다시금 고민하게 한다. '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가정과 교회의 가치가 더 중요하냐? 이 질문에 답하는 D6 컨퍼런스를 소개한다.



김치남 목사

d6familykorea.com  
dasankim04@gmail.com

토론토에수촌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D6코리아 대표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가정실계도' 등이 있다.

**만**은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세상의 문명은 후퇴가 없다. 앞으로 향해서 나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를 기억하라고 한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한다.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교육이 D6(신 6:4-9)이다.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교육 전문가들의 강조점은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절대 진리, 성경에 가장 오래된 과거의 교육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명령(D6)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가정과 교회의 가치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D6컨퍼런스이다.

### D6컨퍼런스의 목적과 목표

D6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교회의 중요한 파트너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교회의 목회적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선교적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적 '가정'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적 가정과 교회를 통해, 통전적 선교전략을 모색하는 D6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적이다.

D6컨퍼런스는 '가정이 집 안의 교회로서 출발점이 되는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녀 세대 제자 삼기와 신앙계승의 단절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가 팀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문'(Gate)의 역할이 이어가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걸어온 길과 향후 방향성

북미의 D6는 어와나(Awana) 사역의 한계를 고민하던 매트 마킨스(Matt Markins, 어와나 사역 지원 및 전략 마케팅 부대표)와 공동 설립자 론 헌터에 의해 컨퍼런스를 통한 'D6운동으로 발전했다. 2004년부터 매해 실시되는 D6컨퍼런스가 점

### D6컨퍼런스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살리는 '세대 간부흥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D6한국은 2016년 미국 D6와의 공식 협약을 맺고 2년여의 준비 끝에 2018년 8월 충신교회에서 D6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매해 실시되는 미국과 한국의 D6컨퍼런스는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부모를 신앙전수의 주체자로 세워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점 확산되어 유럽(D6유럽)과 아시아(2022년 현재 'D6아시아 40개국 Asia Evangelical Alliance)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살리는 '세대 간 부흥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미국 D6와의 공식 협약을 맺고 2년여의 준비 끝에 2018년 8월 충신교회(이전호 목사)에서 D6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매해 실시되는 미국과 한국의 D6컨퍼런스는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부모를 신앙전수의 주체자로 세워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D6컨퍼런스 수료자들의 피드백

D6컨퍼런스 참가자들의 공통된 피드백 중 하나는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는 세대 간 제자훈련 사역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파트너로 삼아 주일과 주중을 잇는 세대통합 사역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다음세대 사역을 위해 부모 세대가 먼저 제자로 세워질 때 '세대 간 부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 D6컨퍼런스의 목회적 적용과 그 결과

사실, D6컨퍼런스의 목회적 적용은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교육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조부모 및 부모교육이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지 않으면 세대 간의 제자훈련과 신앙계승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마다 세대 간 주중 학교가 세워지도록 모든 교회마다 가능한 세대통합 주일학교(사라지고 있는 주일학교의 대안)로 모든 세대를 지원하는 콘텐츠(D6커리큘럼)와 현장이 필요하다. 그 결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되어 세대와 세대를 잇고, 주일과 주중이 이어주는 '세대통합학교'가 세워지고 있다.

### D6컨퍼런스 개최 계획과 참여 방법

D6컨퍼런스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더욱 감사한 일은 기독교 교육 역사 최초로 '바이블 커넥션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를 제자 삼는 '세대 간 제자훈련(세대통합) 커리큘럼'을 2021년부터 출간하여 신약과 구약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6년 동안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6월 19일(월)~21일(수)에 개최하는 D6컨퍼런스

(장소: 이촌동 총신교회)는 미국과 한국의 D6 전문 강사들이 'All in Heart, Soul, Strength(신 6:5)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

### 2023년 D6컨퍼런스는

6월 19일(월)-21일(수)에 주제 'All in Heart, Soul, Strength(신 6:5)'로 이촌동 총신교회에서 개최된다.

특히 D6커리큘럼을 적용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교재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앞으로 한국의 D6컨퍼런스는 매년 2회 개최와 해외 한인교회 대상으로도 D6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 가정과 교회가 함께

#### '세대 간 부흥'을 준비하는 D6컨퍼런스

위기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다면 지금의 방법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살리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그 고민을 하는 당사자라면, D6컨퍼런스를 주목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길고도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준비했는가? 모든 교회가 다시 가정을 주목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응급 상황 앞에서 교회의 대응은 가정마다의 온라인 '수혈'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가정예배 유형의 '디지털 수혈'은 가족을 사각형 바보상자 앞에 앉게 했다. 현실은 가정의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직면한 상황에 급급해 번갯불에 콩 튀기는 처방전을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

요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른바 가나안 세대와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은 이미 40여 년 전에 미국이 먼저 경험하였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의 많은 부모 세대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진제공 · 김치남

D6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6 홈페이지([www.d6familykorea](http://www.d6family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